

2023

황실 속 품격있는 음악 연주

석조전 음악회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 덕수궁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중앙홀

주최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기획·협력 금호문화재단 후원 갤러리피아노

종천지모 終天之慕

2023년의 마지막 석조전 음악회에서는 한 해를 보내는 여운이 가득한 연말,
깊은 선율과 따뜻한 화성 가득한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으로 채워집니다.
이번 공연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사모의 정'이라는 뜻을 가진 종천지모의 뜻처럼,
브람스 음악에 담긴 애뜻하기도 때로는 시리기도 한 사랑의 모든 면면을 담았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이지혜, 비올리스트 김상진, 이한나와 첼리스트 김민지,
국내 최정상 음악가들이 선물하는 실내악의 밤을 기대해주세요.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현악 오중주 제1번 F장조, '봄', Op.88

String Quintet No.1 in F Major "Spring", Op.88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Grave ed appassionato - Allegretto vivace - Tempo I - Presto - Tempo I

Finale. Allegro energico

현악 오중주 제2번 G장조, Op.111

String Quintet No.2 in G Major, Op.111

Allegro non troppo, ma con brio

Adagio

Un poco Allegretto

Vivace ma non troppo presto

백주영, 이지혜 Violin • 김상진, 이한나 Viola • 김민지 Cello

연주자 프로필

금호솔로이스츠

금호솔로이스츠는 매년 새롭게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중 하나이다. 2007년 뛰어난 재능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으며, 각 멤버들은 주요 국제 콩쿠르의 수상자이자, 활발한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호아트홀을 주 무대로 이스라엘, 스위스, 카자흐스탄, 영국 등지에 초대되어 무대에 올랐고, 서울국제음악제, 부산문화회관, 광주 금호아트홀, 통영국제음악당 등 국내 각지의 관객들에게도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15년간 10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해왔으며, 한국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며 실내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석조전 음악회의 연주를 맡아, 기존 멤버들에 더하여 특별한 게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23년 11월 석조전 음악회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이지혜, 비올리스트 김상진,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가 함께한다.

음악감독 | 첼리스트 김민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 툴루즈 음악원에서 수학했고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 허드슨 벨리 필하모닉 현악 콩쿠르, HAMS 국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등을 우승했다.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아시아인 최초 첼로 부수석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한다. 2023년부터는 여수에코 국제음악제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어 음악제를 이끌고 있다.

사회 | 클래식 음악 큐레이터 이상민

워너클래식에서 마케팅 이사를 역임했으며, 국내외 우수 연주자들의 앨범을 발매했다. 음악 잡지 등에 클래식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클래식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한다. 클래식 교양 강의, 콘서트 MC 등 클래식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연주자

백주영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인디애나폴리스, 롱티보 크래스팽,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매년 출전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연이어 입상한 소위 한국 음악가들의 국제 콩쿠르 연패 신드롬의 '원조' 바이올리니스트다. 당당하면서도 섬세하고, 우아하면서도 폭발적인 매력의 소유자로 카네기 홀, 링컨 센터, 케네디 센터, 산토리 홀 등 최고 무대에서의 연주와 런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NHK 심포니,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선보여왔다. 2005년에는 서울대학교 최연소 교수 임용이라는 기록 또한 세웠다.

이지혜 Violin

한국예술종합학교(故김남윤 사사),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미리암 프리드 사사)를 거쳐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연주자과정(아나 추마첸코 사사)을 졸업한 이지혜는 2011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 사라사테 콩쿠르 우승 등 다수의 콩쿠르에서 수상하였다.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체임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였고, 로켄하우스, 크론베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청 연주를 가졌다. 2013년 아육스부르크 필하모닉 최연

소 악장을 역임하였고, 2015년 동양인 여성 최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악장에 임명되었다. 현재 트리오 가온 멤버로도 활약 중이며, 2023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김상진 Viola

동아 콩쿠르 최초 비올라 우승자로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미국, 독일,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대표 음악 축제와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전 세계에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이자, 음반 프로듀서와 편곡자로 다수 가스펠 음반 제작에 참여했으며, 매년 30여 회 작품들이 연주되는 작곡가이기도 하다. 쾰른 국립 음대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수학한 김상진은 중국 상해 국립 음악원의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한나 Viola

비올리스트 이한나는 오늘날 가장 활발히 연주를 펼치는 음악가 중 한명으로, 한국 클래식 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음악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이한나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평창대관령음악제, 코리안심포니, 성남시향, KBS교향악단 협연 등 비올리스트로서 설 수 있는 국내 모든 대표 무대에 올랐으며 북미와 유럽 굴지의 무대에서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스티븐 이설리스, 김 카쉬카시안, 콜린 카 등 명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금호솔로이스츠,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오푸스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며, 연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등에 출강한다.

김민지 Cello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거쳐 툴루즈 음악원 전문연주자 학위를 취득한 김민지는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 우승, 허드슨 벨리 필하모닉 현악 콩쿠르 1위, HAMS 국제 콩쿠르 1위, 어빙. M.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1위와 위촉 작품 특별상 등을 수상하였다. 필라델피아 김머, 트리니티 센터, 보스턴 조던 홀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연주하였으며, 스페인 레이나 소피아 오케스트라 첼로 부수석을 역임하였다.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금호솔로이스츠, 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수석 멤버로 활동하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노트(참고)

요하네스 브람스 현악 오중주 제1번, F장조, '봄', Op.88

브람스는 1869년까지 음악의 중심지인 빈에 정착했지만, 여름이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머무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중 하나가 오스트리아 북부에 위치한 바트이슬이라는 곳인데, 브람스는 이곳에 자주 머물며 영감을 받았고 자신이 남긴 두 곡의 현악 오중주를 모두 이곳에서 작곡했다. 제1번 현악 오중주는 1882년에 완성된 것으로, 1875년에 현악 사중주 제3번을 작곡한 이후 교향곡 제2번(1877년작), 바이올린 협주곡(1878년작)과 같은 오케스트라 작품에만 몰두해오던 브람스가 무려 7년 만에 내놓은 실내악 곡이다. 현악 사중주에 비올라가 추가된 편성은 브람스 특유의 깊은 울림을 더해주어 무척 아름다우며, 작곡가 자신도 이 작품을 특히 좋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글: 강선애)

요하네스 브람스 현악 오중주 제2번 G장조, Op.111

브람스가 가장 편하게 여기는 악기는 피아노였다. 그는 오랫동안 피아노 없이 현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실내악곡을 작곡하는 것을 꺼렸다. 대부분의 현악 작품들은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음악적 동료인 요아힘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그의 평가를 들어본 뒤 출판 여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피아노 오중주 Op.34의 원형인 현악 오중주 버전이 평단으로부터 매서운 비판을 받아, 브람스의 현악기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일었다. 그는 1882년에야 현악 오중주 제1번 Op.88을 완성하면서 이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두 대의 바이올린과 두 대의 비올라, 그리고 첼로로 구성된 두 번째 현악 오중주 Op.111은 이미 불안을 극복하고 담대해진 말년의 노장이 1890년 여름에 작곡한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을 끝으로 브람스는 자신의 작곡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1890년 12월 브람스는 이 악보를 베를린에 있는 출판사에 보내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이 음과 더불어 당신은 내 음악에 작별을 고해도 좋다. 이 음은 멈추고자 가장 최고의 절정에 도달해 있기에.” 실제로 그는 이듬해 봄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분간 미출판된 악보들을 손보며 보냈다. 그러나 물론 그는 자신의 결심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피아노곡을 비롯한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어쨌거나 이 작품은 말년의 노 작곡가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오스트리아 특유의 쾌활함과 생기가 넘쳐서 그 어떤 고별의 힌트도 엿보이지 않는다. (글: 노승림 음악칼럼니스트)